

제8장

두 번째 환상: 구속주 예수님(5장)

이제 5장에서는 천국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어린 양 예수님으로 바뀐다.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안팎으로 쓰여져 일곱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있었다(1).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2)는 외치니, 요한은 크게 울어버린다. 일곱 인으로 봉합된 두루마리를 펴서 볼 마땅한 자가 없었기 때문이다(4). 그러자 장로 중의 한 사람이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의 일곱 인을 떼실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 준다(5). 그리고 하나님과 네 생물 사이에 있던 어린 양 예수님이 나와 그 두루마리를 넘겨받자, 이것을 본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한다(8-14).

1. 토지 무르기

사도 요한은 왜 울었을까? 그리고 예수님만이 그 두루마리에 봉해진 일곱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이에 답하기 위해 구약의 ‘토지 무르기’ 규정을 한번 살펴보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무를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무를 것이요(레 25:23-25)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레위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들에게 분배해 주셨다.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어느 누구도 그 분배 받은 땅을 매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놓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난하여 생계를 위한 목적으로, 토지 파는 일은 허락 되어졌다. 그리고 판 토지는 회년(안식년이 일곱 번 지난 50년마다 돌아오는 해)에 다시 토지를 판 자의 손에 돌아가도록 규정해 놓으셨다(레 25:28).

만약 토지를 판 자가 그 판 토지를 좀더 일찍 찾아 오길 원하지만 너무 가난하여 그것을 무를만한 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 가운데 한 사람(기업 무를 자)이 그 토지를 다시 사서 그 판 자에게 돌려 줄 수 있다. 단 두루마리 계약서에 작성된, ‘회년 전에 그 토지를 다시 되찾기 원할 때에 이리이러한 조건을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즉 토지를 판 자가 다시 그 토지를 되찾기 원할 때에 그 봉합된 두루마리 계약서에 작성된 위약금을 배상한 후에 그 토지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것이다.

왜 하나님은 토지 매매에 이러한 것들을 규정해 놓으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와 영광을 주셨다. 그런데 아담은 그의 범죄로 인해 그가 받은 권세와 영광을 모두 상실하게 되었다. 그 결과, 사단은 ‘아담이 범죄로 인해 그가 받은 권위와 영광을 다 내게 넘겨 주었다’(눅 4:6)라고 말을 한다. 즉 아담이 범죄로 인해 하나님에게서 부여 받은 모든 권위와 영광을 사단이 다 넘겨 받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타락한 인간 잃어버린 권위와 영광을 다시 찾아 올 수 있을까? 불행하게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타락한 인간은 사단에게 넘긴 그 권위와 영광을 다시 찾아 올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인간이 잃어버린 권위와 영광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규정 하나를 마련해 놓으셨다. 그 규정은 인간과 가장 가까운 친족 중 한 사람이 그것을

찾아 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그 사람은 인간이 잃어버린 권위와 영광을 다시 찾아 주고 싶은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인간의 직계 손이 아니면서 인간의 가장 가까운 친족은 누구일까? 아담의 후예인 인류는 당연히 될 수 없다. 인류는 아담의 후손으로 모두 아담의 직계 손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세상에 아담의 직계 손이 아니면서 인간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는 자가 과연 있을까?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기에 아담의 직계 손이 될 수 없으며, 참 인간으로 오셨기에 인류에게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된다.

2. 두루마리를 취하신 예수님

요한이 울어버린 이유는 세상에 인봉된 그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장로 중 하나가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님이 두루마리에 봉한 인을 떼실 것’이라고 말한다(5). 예수님이 인간이 잃어버린 권위와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고 선언한 것이다.

다니엘서에는 일곱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와 관련된 말씀이 나온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에 큰 환난이 일어나 어떤 많은 이들은 이로 인해 깨어나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될 것이나, 어떤 이들은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단 12:1-2). 그리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많아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을 간수하여 봉합하라’(단 12:3)고 명하신다.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하라’는 것은 그 봉해진 두루마리가 종말이 되어서야 그 봉해진 내용이 무엇인지 알게 되며 성취된다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는 어느 시대를 말하는가? 그 시대는 ‘많은 사람이 왕래하며 지식이 더해진 시대’이다. 이는 로마 시대를 말한다.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한다'라고 할 정도로 로마제국은 세계로 길을 내며 여러 나라로 길이 통하도록 도로를 정비한 나라였다. 그 결과로 세계의 사람들이 서로 빠른 왕래를 하며 살았다. 또한 로마제국은 플라톤이나 스토아 사상 같은 헬라 철학자들의 출현과 그들의 가르침으로 인해 가장 풍성한 지식을 소유한 나라였다.

예수님은 이렇게 로마 시대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점에서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성육신한 때를 의미하며, 예수님에 의해 그 봉합된 두루마리가 밝혀지고 성취되어진다는 예언이었다. 그래서 장로 중의 한 사람이 '일곱 인으로 봉해진 그 두루마리를 개봉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그 장로는 예수님이 봉해진 그 두루마리를 개봉할 수 있는 합당한 자이심을 이렇게 소개한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로서 이기신 어린 양'(5,6)이시라는 것이다. 즉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봉해진 그 두루마리의 일곱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이다. 누가 유다지파의 사자이며 다윗의 뿌리인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야곱은 그의 아들 유다에게서 장차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것을 예언하였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이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창 49:9)

유다 지파를 '사자'라는 동물로 상징한 것은 사자는 동물의 왕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사자와 같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단을 찢고 물리쳐 굴복시키실 승리자가 되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게다가 장로 중 한 사람은 예수님을 ‘다윗의 뿌리’라고 덧붙여 소개한다. 이사야는 유다의 직계 손인 ‘이새의 뿌리’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였다(사 11:1,10). 이새의 뿌리는 다윗을 의미하지만, 이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승리하셨는가? 그의 죽으심을 통해 승리하셨다.

요한은 예수님을 ‘일찍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였다.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묘사한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려면 예수님은 사단에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다. 예수님은 인간이 사단에게 팔아 넘긴 계약서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댓가를 치루셨다. 그 결과로 인간이 사단에게 빼앗긴 권위와 영광을 다시 찾아 와 인간에게 다시 돌려줌으로써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것이다. 예수님의 이러한 십자가의 희생적 죽음은 교회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다. 즉 성도들이 복음 증거로 인해 세상의 핍박을 당하여 순교하는 십자가의 삶이야말로 진정 사단에게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라 할 수 있다.

3. 찬양을 받으시는 어린 양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일곱 인으로 봉해진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자,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천천만만의 천사들은 예수님을 찬양한다(9-12). 이들의 찬양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었다. 예수님의 구속적 죽음으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이 땅에서 왕 노릇 하는 존재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지내는 천상의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양한 이유였다.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적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교회가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는 어떠한가? 우리는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안정된 삶이나 축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자녀들이 별 문제 없이 잘 자라나고 있기에, 앓던 병이 나았기에, 또는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 가족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 경우에도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을까? 아마도 그러지 못할 것이다. 이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형편과 관계없이 다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으심에 대해 감사하는 예배가 되어야함을 교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중심적이기보다는 사람 중심적인 경우가 더욱 많다. 오늘날 교회에 ‘열린 예배’ 또는 ‘구도자 예배’가 성행하고 있다. 열린 예배나 구도자 예배는 불신자를 중심으로 행해지는 예배이다. 교회의 프로그램들을 불신자의 눈에 맞추어 불신자들이 관심을 갖는 설교나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찬양을 드리는 예배이다. 이것은 결코 바른 예배가 될 수 없다. 우리의 예배는 마땅히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한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수많은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이다.